

# 금융지주 화두 ‘혁신금융’... 빅3 컨트롤타워 속속 출범

**신한** 2000여명 초대형 위원회  
**KB** 모험자본 활성화 투자 지원  
**하나** 대출지원 확대, 펀드 조성

〈금융지주 혁신금융 컨트롤타워 현황〉

구분	신한금융지주회사	KB 금융지주	하나금융그룹
명칭	신한 혁신금융 추진위원회	KB 혁신금융협의회	혁신금융협의회
책임자	위원장 / 조용병 회장	의장 / 윤종규 회장	의장 / 김정태 회장
구성	14개 그룹사의 110여개 본부 부서 임직원 약 2000여 명 참여	혁신기업 지원과 관련된 계열사 사장 및 임원 등 총 12명의 위원	관계사 사장 및 그룹 주요임원 17명이 위원으로 참여
핵심 방향	기업대출 체계 혁신, 혁신기업 투자 확대, 혁신성장플랫폼 구축	모험자본 활성화 위한 투자 지원, 혁신금융 활성화 위한 여신 지원	협의회 산하에 기업여신 시스템개선협의회와 창업벤처투자협의회 분과 운영

/자료=각 사 취합

국내 금융지주사가 혁신금융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속속 출범시키고 있다. 혁신금융을 위한 투자와 지원이 여러 계열사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그룹 차원의 총괄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한금융그룹과 KB금융그룹에 이어 하나금융그룹이 혁신금융협의회를 출범시킨 가운데 통 큰 투자에 관련 펀드 조성, 상품 출시까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김정태 회장이 의장을 맡고, 관계사 사장 및 그룹의 주요 임원 17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혁신금융협의회’를 새로 만들었다.

앞서 혁신금융 지원을 위한 그룹 컨

트롤타워로 신한금융은 ‘신한 혁신금융 추진위원회’, KB금융은 ‘KB 혁신금융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모두 최고 책임자는 지주 회장으로 정해냈다.

특히 신한금융의 경우 산하 14개 그룹사의 110여개 본부부서의 임직원 약 2000여 명이 참여하는 초대형 위원회로 구성했다.

혁신금융을 실행하기 위한 큰 틀은

성장을 위한 투자와 여신지원이다.

하나금융은 혁신금융협의회 산하에 ‘기업여신시스템개선협의회’와 ‘창업벤처투자협의회’ 2개의 분과협의회를 운영기로 했다. 기업여신시스템개선협의회는 일괄담보제도 정착, 기술평가와 신용평가의 일원화 등 기업여신시스템 혁신과 관련 대출 지원 확대를 담당한다. 창업벤처투자협의회는 직간접투자

와 펀드 조성 등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담당한다.

신한금융은 혁신금융 3대 핵심 방향으로 기업대출 체계 혁신과 혁신기업 투자 확대,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등을 설정했다.

기업대출은 미래 성장성과 기업 가치에 기반해 평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바꾼다. 그룹 계열사 중 기업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신한은행이 주요 정책을 담당하며 ▲유·무형 자산 기반 우대 금융상품 지원 강화 ▲동산 담보대출 활성화 및 일괄담보 운영체계 선(先)구축 ▲미래성장성·수익성 기반 평가 및 심사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혁신기업 투자는 자본시장에 강점이 있는 그룹·글로벌 투자금융(GIB) 사업 부문이 총괄을 맡아 신한 퓨처랩(Future's Lab)을 통한 투자는 물론 프로젝트 및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개별로도 혁신성장기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신한금융은 매월 개최되는 그룹경영회의(사장단 회의)에서 혁신금융 추진위원회의 성과와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KB금융의 혁신금융협의회는 윤종규 회장을 의장으로 허인 KB국민은행장과 KB증권, KB인베스트먼트 등 혁신기업 지원과 관련된 계열사 사장 및 임원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역시 큰 방향은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투자지원과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여신지원이다.

KB인베스트먼트가 창업기업을 위한 벤처펀드를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매년 4000억원씩 총 2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KB증권은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의 혁신성장 부문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KB국민은행이 지식재산 보유 기업 전용 상품인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을 새로 선보일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JB금융 경영진, 자사주 매입 “책임경영 강화” “마포, 스타트업 ‘혁신성장 1번지’ 될 것”

김기홍 회장 필두 3.3억원 규모

JB금융그룹의 김기홍 회장을 비롯한 전 경영진이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JB금융은 10일 김기홍 회장, 권재중 부사장 등 경영진 6명이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총 6만 1583주, 약 3억 3000만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수하고 지난 7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JB금융그룹 전 계열사 경영진도 자율적으로 JB금융지주 주식을 취득하여 약 33만주, 총 18억원 이상의 자사주를 취득했다.

JB금융그룹 관계자는 “JB금융지주 주가가 내재가치와 양호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인식해, 그룹사 전 경영진이 자율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했다”며 “이는 향후 실적에 대한 자신감과 주가 부양을 위한 책임경영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새로운 조직문화를 형성하



JB금융그룹 사옥, /JB금융그룹

고 확산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최종구 ‘프런트1’ 착공식 참석**  
광화문 광장 2배, 내년 5월 오픈  
민간협업·스케일업 등 중점 지원

“마포혁신타운을 스타트업 성장의 꿈이 실현되는 ‘혁신성장 1번지’로 자리매김 시키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플랫폼, 마포혁신타운 ‘프런트1(FRONT1)’ 착공식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도전적 스타트업이 혁신을 주도하고, 기업가치가 10억 달러(1조원)를 넘어서는 유니콘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스타트업의 출현과 성장을 위해 혁신창업공간 마포혁신타운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5월 문을 여는 마포혁신타운은 공덕역과 붙어 있는 20층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옛 사옥이 탈바꿈된 공간이다. 지하 1층·지상 20층, 연면적 3만 6259㎡로 면적으로는 광화문 광장의 2배 수준이다.

최 위원장은 “스타트업 생태계는 창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기금빌딩 로비에서 열린 ‘마포혁신타운 리모델링 착공식 타운홀 미팅’에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 멘토링부터 아이디어 교류, 투자자금 조달까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는 지리적인 뭉침이 중요하다”며 “마포혁신타운을 스타트업의 잠재력을 현실로 만드는 ‘혁신 창업 플랫폼’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업경험과 자금조달 경험이 부족한 스타트업을 위해 종합지원체계, 민간 협업, 스케일업을 중점 지원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이 비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내의 모든 투자자

와 민·관 창업지원 기관들이 창의적 스타트업의 혁신과 도전, 성장의 꿈을 함께 키워나가는 ‘혁신성장 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등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대학·기업·연구기관·지역 스타트업 거점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 KB국민銀, 친환경 적금 11주 만에 10만좌

미세먼지 해결 접목 ‘맑은하늘적금’

KB국민은행은 미세먼지 해결을 접목한 친환경 특화상품 ‘KB맑은하늘적금’이 출시 11주 만에 가입좌수 10만좌를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KB맑은하늘적금은 고객의 환경사랑미션 실천과 KB국민은행의 금융우대혜택을 결합한 상품으로 금융권에서는 최초로 출시됐다. 가입고객이 종이 통장 발행하지 않거나,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맑은하늘을 위한 4가지 미션’을 달성하면 최고 1.0%포인트(3년제 기준, 세금공제 전)의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KB손해보험과의 제휴를 통해 대중교통·자전거 상해 보험서비스(최대 2억원 보상) 무료가입 혜택을 추가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상품 출시당시 고객이 가입한 KB맑은하늘적금 한좌당 1000원의 기부금을 적립하고, 목표 금액(1억원)이 달성되면 서울에 도시숲을 조성하기로 해 의미를 더했다.

기부 공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환경재단에 기부금 1억원을 전달하고, 오는 9월 중 서울 노을공원에 ‘KB국민의 맑은하늘숲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KB맑은하늘적금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고객과 함께 나무를 심는 이벤트로 진행된다.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및 KB스타뱅킹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다음달 1일(예정)부터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맑은하늘적금은 고객과 함께 미세먼지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하고자 출시된 상품”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 “빨간날엔 BC카드로 반값 혜택 누리세요”

### Advertorial Corner

비씨카드가 다양한 가맹점에서 최대 50% 할인을 제공하는 ‘빨간날엔BC’ 이벤트를 진행한다. 올해 연말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 등 빨간날에 진행되며, 전월 실적에 상관 없이 비씨카드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비씨카드는 먼저 미스터피자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선착순 500명까지 전국 미스터피자 영업점 또는 앱에서 ‘미스터피자BC세트’를 비씨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50% 즉시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빨간날 외에도 상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국 미스터피자 영업점 또는 앱에서 메뉴에 관계 없이 비씨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20% 즉시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해피포인트 ‘해피오더’에서는 배스킨라빈스와 던킨도너츠 제품을 배달 주문하는 고객에게 50%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비씨 신용카드로 결제 시 혜택이 적용되며, 빨간날을 제외한 날에도 동일 조건 주문 시 20% 청구할인 혜택을 상시 제공한다.



비씨카드 고객들의 문화생활도 지원한다. 서울 사뮷데씨어터에서 진행되는 뮤지컬 ‘스쿨 윌 오브 락’의 7월 21일 공연티켓을 비씨 신용카드로 구매할 시 동일 등급 티켓 1장을 추가로 제공한다. 티켓은 1인당 최대 3장까지 구매 가능하다. /홍민영 기자 hong93@